

‘AI 비서’ 진료 전 과정 관리…광주 ‘AI 특화병원’ 들어선다

내년 국비 30억 반영 사업 추진 탄력
환자·의료진 효과 검증 ‘리빙랩’ 역할
AI의료기술 입증·수출 생태계 육성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의료 현장 전반에 적용하는 ‘AI 특화병원’ 조성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스마트 병원을 넘어 국내에서 개발된 AI 의료 솔루션을 실제 병원 환경에서 검증하고 상용화하는 ‘국가 AX(인공지능 전환) 혁신거점’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며 ‘AI 실증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497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단연 AI 분야다. 시는 AI 관련 예산으로만 1634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AI 특화병원 운영’ 사업에 30억원이 반영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AI 특화병원은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여정)에 인공지능 기술이 개입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병원 모델이다.

기존 병원들이 부분적으로 전산화를 도입한 수준이라면, AI 특화병원은 ‘닥터앤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HIS)’, ‘지능형 병원 운영 솔루션’ 등 이미 개발된 국산 AI 의료기술을 하나의 병원에 집적화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광주시는 지역 내 중형병원급 의료기관을 AI 특화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개발한 AI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와 있는지 검증하는 거대한 ‘리빙랩(Living Lab)’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I 특화병원의 핵심은 사람의 역할을 보조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K-Health 관계자 에이전트’의 도입이다. 구체적으로 환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병원 내 주요 구성원을 돕는 4가지 맞춤형 AI 비서가 활동하게 된다.

우선 ‘환자 에이전트’는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적절한 진료과를 안내하거나 권역 내 병원을 추천한다. 복잡한 의학 용어나 검사 결과도 AI가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진료 일정과 복약 수칙을 꼼꼼히 챙겨 알려주는 역할도 수

행한다.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의사 에이전트’는 진료 중 오가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청취해 전자무기기록(EHR)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한다. 의사가 일일이 타이핑하는 시간을 줄여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또한 복잡한 보험 청구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낼 때 필요한 의뢰서 작성도 보조한다.

‘간호사 에이전트’는 투약 시간이나 환자의 활력 징후(바이탈) 체크 등 우선순위 업무를 알림으로 알려주며, 환자 상태에 따른 표준 간호 계획을 추천해 준다. 환자 교육이 필요할 때는 환자의 언어와 이해 수준에 맞춘 교육 자료를 자동으로 배포해 간호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원무과 등 행정 업무도 AI가 맡는다.

‘행정·수납 에이전트’는 예약 확인은 물론 외국인 환자를 위한 문진표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 진료비 청구 전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환자가 받아볼 설명문도 자동으로 생성해 행정 착오를 최소화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지역 병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다. 광주시는 이 병원을 통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와 AI 의료 솔루션의 성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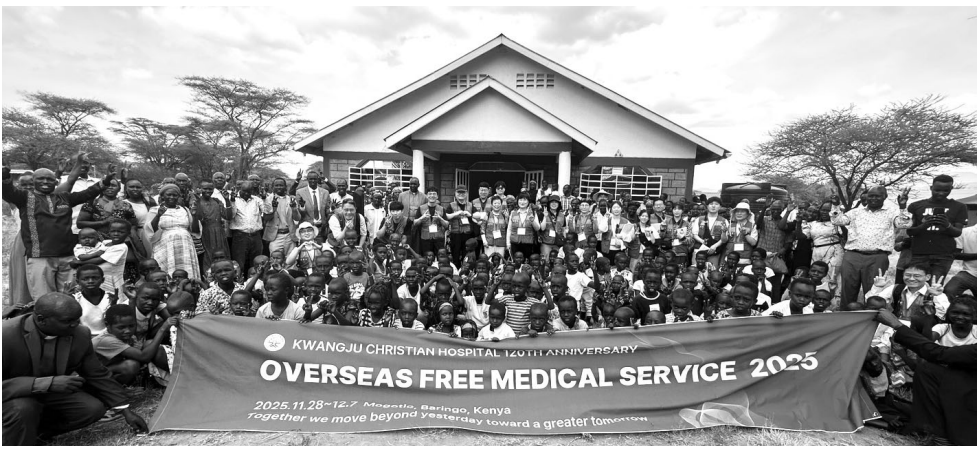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병원 내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관리되며, 이를 통해 다기관 연합 학습 체계로 확장해 의료 AI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AI 예산 확정으

로 광주가 국산 AI 반도체와 최첨단 의료 서비스 등 국가 핵심 전략을 가장 먼저 실증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지밀한 사업 기획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아프리카 케냐서 인술 펼쳐

내과 등 6개 진료과 22명 참여
2100여명 진료 9건 수술 시행

광주기독병원이 개원 120주년을 기념하여 최근(11월28일~12월7일) 아프리카 케냐 바링고주 모고티오 지역에서 제32차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총 2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참여했으며, 내과·소아과·외과·재활의학과·치과·이비인후과 등 6개 진료과가 함께 했다.

봉사단은 모고티오 지역병원과 인근 마지모토 보건소에서 연인원 2100여 명을 진료하고 9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지원

을 제공했다.

올해 방문한 지역은 광주기독병원 개원 120주년 기념교회가 위치한 곳으로, 지난 5월 사전방문을 통해 현지 의료환경을 미리 점검하였고 그 결과 이번 현장 의료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의료봉사는 케냐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케냐 주요 방송사인 KTN 방송국과 지역 신문사가 봉사 현장을 직접 취재, 의료봉사의 의미와 감동을 현지에 전달했다.

이번 봉사단을 이끈 김위환 단장은 “이번 케냐 의료봉사가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진행됐다”며 “각 과별로 잘 준비된 의료진 덕분에 많은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고, 협력해 준 현지 선교사님과 히가온(Higgiaion) 선교팀의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연구 환경 조성

화순전남대병원이 지난 9일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김재봉홀에서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역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 조성에 본격 나섰다.

개소식은 화순전남대병원 민정준 병원장과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 데이터활용지원사업단 정집민 단장, 국립암센터 최동우 데이터활용팀장, 아이티아이즈 류재준 부사장 등 관계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절차 안내와 연구 지원 프로그램 소개가 이뤄졌으며, 안전한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됐다.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는 민감한 의료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분석할 수 있는 보안 전용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이 병원의 임상·진료 데이터, 공공 보건 의료 빅데이터, 국립암센터 암 빅데이터



(K-CURE) 등을 활용해 ▲AI 모델 개발 ▲임상연구 ▲정책·통계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인프라 설계부터 보안 체계 구

축,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까지 기반 조성을 주도해왔으며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지원, 교육, 품질 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을 담당할 계획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대병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나의건강기록’ 앱 연계 진료기록 관리

전남대병원이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개통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진료 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28일 본관 1동 1층 로비에 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환

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소개하고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한 진료기록 열람 방법을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이끌어 있던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본인의 동의하에 통합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관 국가 정책 사업이다. 현재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1269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1개 포함)이 의료데이터 제공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 연계를 통해 전남대병원은 환자가 보유 중인 진료기록(투약 기록, 검사 결과, 진단 정보 등)을 표준화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며, 환자는 스마트폰 앱 ‘나의건강기록’을 통해 본인의 진료 기록을 손쉽게 열람하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시 다른 병원의 의료진에게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의료진 간의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 검사 및 진료 시간을 대폭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